

## 결핵, 고칠 수 있습니다



T.O. COV

결핵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은 그때부터 바로 저기를  
죽은 줄여줄 것인가. 물론 가까운 연년에는 그해출지 모  
르지만 비약하는 약화는 심어낸 동안에 수백년의 시간을  
단축해 주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하리라. 결핵의 역사가  
오래되고 풍류의 이기가 삼할위에도 불행이 영위를 물리  
것이 아쉽지만 결핵이 항생제이러는 사실도 함께 잊어  
나게 하였다.

우리 나라에 초기에 서구의 근대의학이 사용하려면 50  
여년전의 식민정부는 그 실패가 유혹하여 있었으나 오  
늘 우리가 자유와 독립을 찾아 우리 손으로 우리 몸을  
돌보면서 복되는 결핵이 두손 뻗으기를 잘 알고 결핵이  
면 어떻게 고치야 하는지도 잘 알게 되었다.

이런 경우 중환자 케어과를 설립이나 최적으로 함께 편제  
결핵되고 어떤 치료를 해야 어떤 약을 쓰면서 우리들의  
몸을 잘 돌 볼 수 있기를 생각해 보는 것도 그 의미가  
크리라 믿는다.

特輯

“건강하던 사람이 의사로부터 폐결핵이  
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너무나 그에게는  
큰 충격이기 때문에 간혹 가무러지는 사  
람도 있고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는 여자  
도 볼 수 있습니다. 환자의 약 3분의 2는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마지막이로구나’  
며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부  
모상을 당하였을 때나 아해들의 참척을  
보았을 때 그 죽은 사람이 아직도 살아 있  
는 것같은 감이 들 듯이”

‘결핵의 치료’를 특집으로 한 1958년  
보건세계 12월호의 한 필자는 결핵병원장  
으로 있으면서 환자들에게 ‘결핵’이란 것  
을 말할 때마다 여전히 얼마나 큰 어려움

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젊은이들이 결핵으로 인해 한 달에 몇 사람 씩 쓰러져 가는 것을 마  
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했던 10여년 전에 비해 여러 가지 치료요법이 개발되고 결핵  
약의 효력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도도 높아져 결핵치료에도 많은 가능성이 비치기  
시작했다.

결핵이라고 하면 으레 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왔던 이전  
과는 달리 통원치료를 선호하는 경향도 두드러졌는데, 이는 결핵에 대한 공포가 전  
보다 덜해졌고, 결핵약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그렇지만 새로운 결핵약을 쓴다고 해서 모든 결핵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가 반드시 관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한 요양원장이 쓴 글을 인

용하며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결핵의 치료가 화학요법의 발달로 통원치료로 대체되어 가고 있으나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입원치료는 아직도 필요하다. (첫째, 환자로서 응당 알아야 할 결핵에 대한 지식교육, 둘째, 치료중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임상결과를 정확히 시행하기 위해, 셋째, 결핵을 주위에 퍼뜨릴 가능성이 있는 개방성 환자의 격리를 위해.)’ 54년 전에 얘기된 것이지만 지금과 마찬가지로 결핵에 대한 지식교육과 환자의 적극적인 태도가 결핵치료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결핵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보다는, 여전히 후진국형 질병을 안고 있다는 사실, 혹은 장기간 꾸준히 치료해야 낫을 수 있는 병이란 것이 결핵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낳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결핵환자들은 ‘결핵’이란 용어 자체가 주는 무게에 이 질병을 두려워하고 있다.

“신문에서 방송에서 결핵 환자가 늘었네 어졌네 이런 소리를 할 때면, 그 때마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나 자신이 결핵을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닌 것 같은 느낌이었다.”라는 한 결핵 환자의 얘기처럼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결핵을 앓는 것만으로도 죄인이 된 것 같은’ 괜한 자책에 사로잡혀 있다는 더 큰 문제가 남아있다.

결핵에 대한 죽음의 공포는 걷혀가고 있지만 결핵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은 과연 언제쯤 걷힐지. (洪) ♪

### 눈으로 보는 썬의 발자취

1958년에는 ‘새싹’이란 제목의 썬이 9백만 개 발행되었다. 당시 썬의 판매 기간은 20일. 반년 결핵운동의 상징으로 굳어진 크리스마스 썬 운동이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하에 판매 기간을 더 저가며 팔도록 할 만한 실적을 거두기 시작했다. 또한 크리스마스 썬 판매를 위한 전국통일행사를 시작하여 판매를 촉진시키는데 사용하기도 했다. 썬 도입은 전혀 상상치 못했던 만큼 발행하던 형식에서 벗어나 차등별로 손머리 위에 들어오는 새싹을 대칭형으로 배열해 만들었다. 전년에 이어 차라 새가 도입했으니 처음으로 한국소재행사에서 인쇄했다.

